

곽시징 〈오륜가〉의 우정론*

마테오 리치 『교우론』과 비교하여

장세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과정)
엄국화 (서울대학교, 연구원)

I. 들어가는 말

II. 〈곽소부오륜가〉와 〈교우론〉의 우정론

1. 봉우의 도(道) 소개 및 친구 선택
2. 친구의 의무
3. 친구와 나의 같음(同)
4. 친구 간 의리
5. 우정과 관련된 세태 비판

III.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2.54.10>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C2A02081381).

• ABSTRACT •

Friendship of Kwak Sijing's *Oryunga* (五倫歌):
Compared to Matteo Ricci's *Gywooron* (交友論)

Ph.D. Cand., Jang, Sehui (Sookmyung Univ.)
Researcher, Uhm, Kookhwa (Seoul National Univ.)

Bungwooyushin (朋友有信)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our lives in that friendship (友情 or 友道) embodies a sense of ethics in a horizontal relationship. As the 18th century passed, the theory of friendship was actively developed with the fixation on the party politics, the precision of Neo-Confucian concepts, and the influx of Matteo Ricci (1552-1610) *Gywooron* (交友論). At the end of the 17th century, Hoenisibi (懷尼是非) brings up the question of "Who is a true friend and what is the role of a friend?" Kwak Sijing (郭始徵, 1644-1713), who was amid a political strife, searched for an answer through *Oryunga* (五倫歌). The essence of friendship that Kwak Si-jing thought was "complementation of humanity through Checking Goodness." And, in that the contents of *Oryunga* show a considerable degree of agreement with Matteo Ricci's *Gywooron*, it can be said that the theory of friendship is at the point where it begins to be 'discoursed.' Both articles recognize friendship as an area of 'ethics' and emphasize that friendship is a process for "becoming a good person," which shows the core of friendship theory developed later.

Key words: Friendship, Kwak Sijing, *Oryunga*, *Gywooron*, Boin(輔仁),
Chaksun(責善)

I. 들어가는 말

오륜(五倫)의 다섯 번째 항목 ‘붕우유신(朋友有信)’은 ‘우정(友情)’ 또는 ‘우도(友道)’가 수평적 관계에서 윤리의식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가장 현대적인 덕목이며, 우리의 삶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친(親)’의 윤리가 강조되었던 수직적 체계의 조선에서 ‘우정’은 상대적으로 관심받지 못하던 덕목이었다. 그럼에도 18세기를 지나면서 사색당파의 고찰, 성리학적 개념 해석의 정밀화,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1552~1610)의 『교우론(交友論), 1595』 유입 등을 계기로 우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된다.

『교우론』은 예수회 선교사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서 활동할 때 첫 번째로 저술한 책이다. 이는 그의 대표작인 『천주실의(天主實義, 1603)』보다 8년 앞서는 책인데, 서양 고전에 있는 ‘우정’과 관련된 잠언 100개 항목을 소개하였다. 『교우론』은 조선 지식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조선 사회에서 우정의 담론이 어떻게 발전되었는지에 대해 ‘우도론(友道論)’의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도 축적되었다.

강민구는 중세 우도론의 사적 전개를 구체적으로 살폈는데, 그에 따르면 우정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하기 시작한 것은 이곡(李穀, 1298~1351)의 〈의재기(義財記)〉로, “친구 간의 의리와 형제 간의 우애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에 대해 다루었다. 그리고 16세기로 접어들어 분당의 과정을 겪으면서 ‘참된 우정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의식이 떠올랐고, 이에 대한 탐색 과정에서 친구간 도리에 대한 논리가 구축되기 시작하였다고 보았다.¹⁾ 김수진도 분당의 분기가 18세기 우정론 형성에 기반이 되었다는 점

1) 강민구, “우리나라 중세 우도론에 대한 고찰 1-우도론의 사적(史的) 전개,” 『동방한문학』 71 (2017), 7-62.

을 지적한다. 16·17세기에 봉당이 성립함에 따라 교우 관계에 제약이 가해지고 이후 노론계가 분화된 것은 우정론 형성을 촉진한 주요 요인이었다. 사회주도세력이 된 노론계가 사대부로서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도덕과 양심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봉우 간 ‘책선(責善)’과 ‘보인(輔仁)’에 주목했는데, 노론 당내의 계파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는 것이다.²⁾

이러한 우정론의 촉발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건이 ‘회니시비(懷尼是非, 1684)’이다. 송시열(宋時烈, 1607~1689)과 제자 윤拯(尹拯, 1629~1714) 사이의 불화로 노론과 서론으로 분열하게 된 사건인데, 갈등을 촉발한 계기가 ‘책선(責善)’이었고, 이와 관련된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우정론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 중 괘시징(郭始徵, 1644~1713)이 있는데, 알려진 바가 거의 없어 그동안 주목되지 않았다. 그런데 괘시징이 창작한 <괘스부오륵가>에서 다른 우정에 대한 내용은 우정론의 전개와 관련하여 눈여겨 볼 만하다.

괘시징은 송시열과 송준길(宋浚吉, 1606~1672)의 문인으로, 연잉군(延祚君, 이후 영조(英祖, 1694~1776))의 왕자사부(王子師傅)였으며, 윤봉조(尹鳳朝, 1680~1761)가 쓴 묘갈명(墓碣銘)이나 송치규(宋穉圭, 1759~1838)가 지은 축문(祝文) 등을 참고할 때 학문적으로 정밀하며 지조 있고 겸손한 인물이었다. 그는 치열한 갈등 끝에 노론과 소론이 이미 분파되었던 1686년에도 윤拯을 찾아가 조언을 아끼지 않는 등 봉당 간 첨예한 대립 속에서 중재 역할을 하고자 노력했다. 영조 때 김한유(金翰運, 1680-?)가 올린 상소에서 괘시징이 “사우(師友) 사이에 종사(從事)”하였다고 한 것은 이와 관련 있다고 할 수 있다.³⁾ <괘스부오륵가>는 이러한 배경에서 창작

2) 김수진, “18세기 노론계 지식인의 우정론,” 『한국한문학회연구』 52 (2013), 165-200.

된 작품이며, 오륜에 대한 곽시징의 정밀한 해석이 담겨 있다. 그래서 이전의 <오륜가>에서는 ‘봉우유신’ 항목에 대하여 다루지 않거나 그 비중이 적었던 것과 달리 상세하게 다루고 있으며 그 내용에 당시의 시세(時世)를 반영하고 있다.⁴⁾

<곽스부오륜가>는 강전섭이 학계에 소개하면서 이 작품의 작자를 곽시징(郭始徵, 1644~1713)으로 추정하였고, 이후 이 견해를 수용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⁵⁾ 작자에 대한 이견은 아직 없으나, 창작 시기에 대하여

3) 『영조실록』 65, 영조 23년 7월 22일, “우리 현종과 숙종 양조의 세대에는 찰방 신 곽시징, 정랑 신 이지렴과 같은 이가 있어 사우 사이에 중사하였는데, 어렸을 적에 도를 강론하여 당세의 유현들이 모두 큰 유학자와 존경하는 벼으로 대우하였습니다. 곽시징의 공은 성학을 돕고 인도하여 오늘의 태평을 열게 한 데 있다.”(粵我顯 肅兩朝之世, 有若察訪臣郭始徵 正郎臣李之謙, 從事於師友之間, 講道於童艸之時, 當世儒賢, 皆待之以碩儒 畏朋。始徵之功, 在於輔導聖學, 啓今日太平)

4) 이전의 <오륜가>에 나타난 우정에 대한 인식은 한창훈, “조선 시대 오륜가에 나타난 우정에 대한 인식과 그 양상,” 『고전과 해석』 7 (2009), 61-75에서 살필 수 있다. 여기에서는 16-17세기에 사람들이 향촌개혁운동의 일환으로 창작했던 <오륜가>는 창작계층의 이상이나 명제를 문학적으로 그렸으므로 현실적 문제인 ‘우정’을 다루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5) 강전섭, “전곽사부(傳郭師傅)의 <오륜가>에 대하여,” 『동양학』 13 (1983), 87-127; 박경애, “오륜계 가사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1994, 1-93; 하운섭, “조선조 ‘오륜’ 담론의 계보학적 탐색과 오륜시가의 역사적 전개 양상,”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12, 1-327; 박연호, “19세기 오륜가사 연구,” 고려대 고전문학한문학연구회 편, 『19세기 시가문학의 탐구』, (서울: 집문당, 1995), 365-407; 서영숙, “오륜가사의 서술방식과 의미,” 『한국언어문학』 37 (1996), 391-406; 박연호, 『교훈가사연구』 (서울: 다운샘, 2003); 송재연, “곽시징의 <곽스부오륜가>에 구현된 오륜 형상과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 57 (2020), 57-87.

강전섭은 제목의 ‘곽스부’가 곽시징이 연잉군의 왕자사부로서 공이 높았기 때문에 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곽시징의 행장(行狀)과 묘갈(墓碣) 등에서 그가 국문시가를 창작했고 효제(孝悌)의 도리를 우리말로 풀이하였다는 내용을 근거로 곽시징이 <오륜가>를 창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곽시징과 동문수학한 권상하(權尙夏, 1641~1721)가 지은 만사(挽詞)의 제목이 <곽사부개장만(郭師傅改葬挽)>인 것, 송시열의 6대손인 송치규(宋禩圭, 1759~1838)가 목천(木川) 송명사(崇明祠)에서 곽시징 신위(神位)에 올린 축문에 ‘우곽사부위(右郭師傅位)’라는 부기가 붙어 있는 것을 볼 때, 곽시징이 ‘곽사부’로 불렸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수재집(寒水齋集)』 1, 「시(詩)」, <곽사부개장만>; 『강재집(剛齋集)』 7,

1708년 이후 광시징이 공주 이인도찰방(利仁道察訪)으로 재직할 때 지방민을 교화하기 위해 창작했다는 강전섭의 견해와 달리, 박연호는 기사환국(己巳換局, 1689)으로 인해 태안(泰安)에 은거하던 시절이나 갑술옥사(甲戌獄事, 1694) 이후 고향 목천(木川)으로 돌아왔을 때 그곳의 젊은 사족들에게 권계의 의미로 창작했을 것으로 보았다.⁶⁾ 주세붕의 〈오륜가〉에서 이어지는 오륜시가의 전통을 보았을 때, 〈오륜가〉는 주로 백성을 교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창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글 할 놈 글 시키고 활 쓸 놈 활 쏘이고 과업을 힘써 하면 입신양명하리로다”, “여공(女功)을 구비하면 현철부인(賢哲夫人) 되느니라”, “내 행실 정직하고 내 문장 넉넉하여 조금도 흠 없어야 남을 능히 가르치나니”와 같은 내용을 보았을 때,⁷⁾ 촌민들만을 대상으로 한 노래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백성을 ‘교화’한다는 관점보다는 사대부가 유교적 덕목의 ‘내면화’한다는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겠다.

이 글에서는 〈곽스부오륜가〉의 ‘봉우유신’에 대한 내용을 『교우론』과 비교하여 광시징이 논한 ‘우정’의 본질과 도의(道義)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 작품은 이전의 문학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우정의 ‘담론’을 다루고 있으며, 박지원(朴趾源, 1737~1805) 이후 전개된 우정론에 큰 영향을 미친 『교우론』의 맥락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⁸⁾ 물론 광시징이 『교우론』의 영향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기록이

『축문(祝文)』, 〈목천송명사춘추향축문(木川崇明祠春秋享祝文)〉.)

6) 강전섭, 위의 논문, 1983, 35-57; 박연호, 위의 책, 2003, 79-101.

7) “글할 놈 글 일키고 활 쓸 놈 활 쏘이고 과업을 힘써 하면 입신양명하리로다”, “너공이 구비하면 현철부인 되나니라”, “니 행실 정직하고 니 문장 유여함이 조금도 흠 없어야 남을 능히 가르치되”, 이 글에서는 〈곽스부오륜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해 강전섭(위의 논문, 1983, 118-119)이 비장본(鄙藏本) 14장 〈곽스부오륜가〉, 학산본(鶴山本) 12장 〈오륜가권지단(五倫歌卷之單)〉, 유씨본(柳氏本) 〈八一堂五倫歌(팔일당 오륜가)〉를 재구성한 것을 인용하였다.

8) 광시징이 『교우론』을 접하였다는 구체적인 근거는 찾기 어려우나, 이수광(李睟光,

없기 때문에 그 영향 하에 창작이 이루어졌다고 입증할 수는 없으나, 조선 후기 우정론이 어떻게 담론화되었는가를 이해하고 ‘우정론사(友情論史)’를 온전히 구현(俱現)하기 위해 <곽스부오륜가>와 『교우론』의 내용을 비교하는 것은 유의미한 작업이라 판단된다.

곽시징은 오륜가를 통하여 “누구를 친구로 삼을 것인가?”부터 “친구로서 마땅한 도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제시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핌으로써 봉당 분기의 충격이 우정론 전개에 미친 영향과 이후 노론계 지식인들을 넘어 소위 실학과 지식인들에 이르러 확장된 ‘우정론’의 출발이 어떠했는지 가늠해볼 것이다.

II. <곽스부오륜가>와 <교우론>의 우정론

<곽스부오륜가>는 300여 구에 이르는 장편 가사인데, ‘친’과 관련된 항목을 가장 상세하게 다루고 있고, ‘우정’에 대한 부분은 비교적 비중이 적으나 37구에 이른다. ‘봉우유신’에 대한 내용은 봉우의 도를 소개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봉우 간 삼가는 태도를 권면하는 것으로 끝맺는데, 대략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봉우의 도(道) 소개 및 친구 선택
2. 친구의 의무
3. 친구와 나의 같음(同)
4. 친구 간 의리(예양의 예)
5. 우정과 관련된 세태 비판

1563~1628)이 마테오 리치와 『천주실의』와 『교우론』을 조선에 소개하였고, 유몽인(柳夢寅, 1559~1623)이 이 책들을 언급한 기록을 볼 때, 곽시징이 활동하던 시기에 마테오 리치의 저작을 접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다.

이 중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며 강조된 부분이 우정과 관련하여 세태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이는 괘시징이 붕비(朋比)의 소용돌이에서 겪은 갈등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어떤 친구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나 친구의 의무로 ‘책선’을 강조한 것과 관련지어 상고해 보아야 한다. 이를 중심으로 3장에서는 앞서 분류한 각 조목과 관련된 『교우론』의 항목을 살펴보면서, 괘시징이 생각한 우정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붕우의 도(道) 소개 및 친구 선택

여보소 벗님نيا 세상 인스 다시 듯소
 익친경형 허려니와 붕우유신 또 있나니
 세상 형실 어렵도다 붕우를 사귀려면
 이것 저것 던져 두고 미들 신자 제일이라
 익지삼우 손지삼우 옛글의 헛였시되
 교우를 흘작시면 엇던 벗슬 사귀던고
 선악을 살펴 가며 지체를 갈희여서

여보시오 벗님네들 세상 人事 다시 들으시오
 愛親敬兄 하려니와 朋友有信 또 있나니
 세상 형실 어렵도다 朋友를 사귀려면
 이것저것 제쳐두고 믿을 信 자 제일이라
 益者三友 損者三友 옛글에 쓰였으되
 交友를 하려 하면 어떤 벗을 사귈 것인가
 선악을 살펴가며 지체를 가리어서

7. 벗을 사귀기 전에 마땅히 먼저 [그 사람의 사람됨을 살펴야만 하고, 사 권 후에는 마땅히 그를 믿어야 한다.]⁹⁾

45. 신용은 원수에게서도 잃어선 안 된다. 하물며 벗에게서일까! 벗에 대한 신용은 말해도 부족하다.¹⁰⁾

<곽스부오륜가>에서도 여타의 오륜가와 마찬가지로 친구를 사귀는 도리에서 ‘믿음(信)’을 강조하였다. 앞서 밝혔듯이 이 가사는 오륜의 항목에 대응하여 구성하였는데, ‘붕우유신’의 항목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전제조건을 제시했는데, 친구를 사귈 때 가려 사귀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약과 ‘지체’를 기준으로 삼되, 구체적으로 “익지삼우 손지삼우”를 들었는데, 이는 『논어』 <계씨(季氏)>의 “유익한 벗이 세 종류이며, 해로운 벗이 세 종류이다. 곧은 이를 벗하고, 신실한 이를 벗하고, 견문이 많이 이를 벗하면 유익하다. 편벽한 자를 벗하고, 선유한 자를 벗하고 편협한 자를 벗하면 해롭다.”¹¹⁾라는 말을 인용한 것이다. 친구에 대한 믿음과 더불어 친구를 가려서 사귈 것을 강조한 것은 <교우론>의 45칙에서도 볼 수 있다. <곽스부오륜가>에서 “미들 신자 제일이라”라고 한 것과 같이 여기에서도 믿음을 최우선으로 삼되, 벗을 사귀기 전에 마땅히 사람됨을 살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다만 <곽스부오륜가>에서 친구의 조건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했는데, 주목할 만한 점은 ‘지체’를 가리라고 한 점이다. 『교우론』 7칙에서도 친구를 사귀기 전에 살펴라고 하였는데, 살펴야 할 대상은 ‘사람의 됨됨이’로 볼 수 있으며, 유가적 개념으로는 그것을 ‘인(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유가에서 생각하는 벗의 근본적 역할을 상고해 보면 이해할 수 있다. 공

9) Matteo Ricci, 交友論, 송영배 역, 『교우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7, “交友之先, 宜察; 交友之後, 宜信.”

10) 같은 책, 18, “信于仇者, 猶不可失. 沉于友者哉! 信于友不足言矣.”

11) 정약용, 論語古今註, 이지형 역, 『논어고금주』 4권 (서울: 사암, 2010), 485, “益者三樂. 損者三樂. 樂節禮樂. 樂道人之善. 樂多賢友. 益矣. 樂驕樂. 樂佚游. 樂宴樂. 損矣.”

자(孔子)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벗어나 말라.”라고 하였는데,¹²⁾ 이에 대해 주자(朱子)는 “인을 돕는 자(輔仁)이니, 자기보다 못하면 유익함은 없고 손해만 있다.”라고 해석하였다. 벗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로서, 상대의 ‘인’을 통해 나를 발전시키고, 나의 ‘인’을 통해 상대를 감화시키는 상호 호혜적인 관계이다. 이후 논의할 ‘책선’의 문제는 이와 관련하여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상대의 인을 돕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인을 갖추어야 하며, 나의 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책선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책선’을 기꺼이 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서로 간의 ‘믿음(信)’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정은 윤리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친구는 수평적·윤리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무나 사귀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관계’를 보전할 수 있는 사람을 가려서 친구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대의 시대적, 사회적 맥락을 고려했을 때, ‘지체’는 ‘분당’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회니시비로 인해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화된 때가 1684년 즈음인데, 광시징이 오륜가를 창작한 시기는 앞선 논의에 따르면 아무리 이르게 잡아도 1689년 이후이다. 즉, 광시징이 이 오륜가를 지을 당시는 사대부의 정체성 확인이 집단을 ‘구별’하는 것에서 비롯되던 시기였다. ‘선악’을 구별한다는 것은 가치판단의 문제인데, 이 가치판단의 문제로 분당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당시에 당에 따라 교유를 맺는 것이 비단 정치적 이해관계를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뒤에서 자세히 논하겠으나 광시징의 책선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던 윤증의 일로, 지체를 가려 사귀어야 한다는 교훈은 광시징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12) 같은 책 1권, 107, “無友不如己者”

2. 친구의 의무

인의로 허심하고 도덕으로 상중하여
상약을 실기 말고 범스를 상의하여
우환을 상구하고 인경의 상문이라

仁義로 許心하고 도덕으로 상중하여
相約을 失期 말고 凡事를 상의하여
憂患을 相救하고 哀慶에 相問하여라

16. 각각의 사람들이 모든 일에 다 완벽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하느님이 벗을 사귀게 하여서 피차 서로 돕도록 하신 것이다.¹³⁾

46. 벗의 직분은 의로움에 이르러서야 완성된다.¹⁴⁾

16칙에서는 친구를 “피차 돕는 존재”라고 하였다. <곽스부오륜가>는 친구 간 돕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는데, “범사를 상의할 것, 우환에서 구해줄 것, 애경사(哀慶事)에 문안할 것” 등을 들고 있다. 친구와 일상의 대소사를 함께하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야 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친구는 “서로를 보완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특히 유의미한 관계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앞서 “약속을 어기지 말 것”을 제시한 것은 이것이 친구 간 신뢰를 유지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기 때문이다. 즉,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생활에서 지켜야 할 지침을 구체화하고 있다.

13) 마테오 리치, 송영배 역, 『교우론』, 11, “各人不能全盡各事. 故上帝命之交友, 以彼此幫助.”

14) 같은 책, 18, “友之職, 至於義而止焉.”

이러한 친구의 의무를 이행할 때,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인의(仁義)와 ‘도덕’이다. “인의로 마음을 허락하고, 도덕으로 서로 따르라”는 구절에서 우정의 전제가 ‘윤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안연(顔淵)은 “군자는 글[치]로써 벗을 모으고, 벗으로써 인을 돕는다[輔仁].”¹⁵⁾라고 했는데, 조선의 유학자들에게 학문이란 수양(修養)의 과정이므로, 글로써 벗을 사귄다는 것은 ‘인의’가 통하는 자가 친구가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돕는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보(輔)’ 자는 수레바퀴 양쪽의 덧방나무를 나타내는 말이다. 즉, 수레가 전복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 벗이란 그와 같이 어려움이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인을 보존하고 더 나아가 완성할 수 있도록 돕는 존재인 것이다. 그렇기에 46칙에서처럼 벗의 직분이 ‘의로움’으로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의로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완성되는가? 〈곽스부오륜가〉에서 찾을 수 있는 단서는 ‘책선’이다.

어진 말 드르며는 깃거 서로 포장하고
그른 일 보거덜남 조용이 경계하면
붕우는 책선이라 이 아니 조홀년가

어진 말 들으면 기뻐 서로 褒章하고
그른 일 보거든 조용히 경계하면
朋友는 責善이라 이 아니 좋을 것인가

19. 바른 벗은 항상 [자기에게] 순응하는 벗도 아니고, 항상 자기를 거스르는 벗도 아니다. 도리에 합당한 경우 순응하고, 도리에 합당치 않는 경우 거스르는 것이다. 따라서 바른 말을 하는 것만이 오로지 벗의 책

15) 정약용, 이지형 역, 『논어고금주』 3권, 419, “曾子曰君子以文會友 以友輔仁.”

무인 것이다.¹⁶⁾

23. 나를 선하게 해 주지 못하는 벗과 나를 해롭게 하지 못하는 원수는
마찬가지다.¹⁷⁾

69. 벗을 사귀는 취지는 다른 것이 아니다. 그의 선함이 나보다 나오면 내
가 그 선함을 본받아 익히고, 나의 선함이 그보다 나오면 내가 그를
교화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 배움은 곧 가르침이고 가르침은 곧 배움인
것이니, 두 사람이 서로 상대방에게 힘입는 것이다.¹⁸⁾

친구의 책무 중 가장 우선되는 것은 ‘책선(責善)’이다. 『논어』에서는 이
를 ‘절절시시(切切僇僇)’¹⁹⁾라고 표현했는데, 허물에 대해 간절하게 충고
하여 선한 길로 권면하여 이끌라는 뜻이다. 앞서 제시하였듯이, 책선은
‘보인’ 즉, 인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우정의 방법론이다. 『교우론』에서
도 친구의 책무에 대하여 19, 23, 46, 69칙 등 여러 장에 걸쳐 강조했는데,
핵심은 선함으로 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69칙에서는 상호 간 선함을
본받아 교화시키는 것을 벗을 사귀는 취지로 제시했으며, 23칙과 19칙에
서는 벗의 지상과제가 바른 말을 하여 선으로 이끄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그것을 실행할 때는 조심스러운 태도로 해야 한다. 공자(孔子)
는 선한 길로 인도하되, 듣지 않으면 그만두어 자신을 욕되게 하지 말라
고 하였으며,²⁰⁾ 정자(程子)도 책선을 할 때는 성의를 다하되 말을 아껴야

16) 마테오 리치, 송영배 역, 『교우론』, 11, “正友不常順友, 亦不常逆友. 有理者順之, 無理者逆之. 故直言獨爲友之責矣.”

17) 마테오 리치, 송영배 역, 『교우론』, 13, “友人無所善我, 與仇人無所害我, 等焉.”

18) 마테오 리치, 송영배 역, 『교우론』, 25, “交友之旨, 無他. 在彼善長於我, 則我效習之. 我善長於彼, 則我教化之. 是學而卽教, 教而卽學, 兩者互資矣.”

19) 정약용, 이지형 역, 『논어고금주』 3권, 569, “친구에게는 간곡히 꾸짖음이 장엄하며, 형제에겐 화열한 모습을 갖는 것이다.(朋友切切僇僇 ‘兄弟怡怡’)”

상대에게 유익하고 자기가 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²¹⁾ 주자도 책선에 대하여 풀이하기를, 마음을 다하여 말함으로써 인도하되 의(義)로 합한 자이므로 불가능하면 그만두어야 한다고 했다.²²⁾ <곽스부오름가>에서 “조용히 경계하라”고 한 것은 책선의 어려움이 반영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곽시징은 책선을 중시하였다. 윤봉조가 쓴 묘갈명(墓碣銘)을 보면 “친구와 교제하는 데는 반드시 성심(誠心)을 다하였었는데, 그 낭패하기를 윤증처럼 한 이에게도 타이르고 책망하다가 고치지 않은 뒤에야 절교하였지만, 악한 말은 하지 않았다.”²³⁾라고 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1686년 윤증이 곽시징에게 보낸 편지에서 짐작할 수 있다. 곽시징이 당시 윤증에게 보낸 편지는 남아있지 않으나 윤증이 “더구나 이렇게 종이 가득 수백 자를 써 보내신 것이 실로 저를 아끼시는 지극한 뜻에서 나온 것이니, 고명께서 저를 깊이 믿고 돈독하게 허여한 분이 아니라면 어찌 이렇게 양단(兩端)을 다 말하여 가르침을 베풀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²⁴⁾라고 한 것을 볼 때, 곽시징은 송시열과 윤증의 갈등이 상당히 깊어진 이후까지도 윤증에 대하여 성심을 다해 벗의 도리를 다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끝내는 절교하되 악한 말은 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곽시징은 “듣지 않을 때 그만두어 욕됨을 피하는” 덕을 실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책선’은 노론·소론 분기의 결정적 계기였다. 윤선거(尹宣舉, 1610~

20) 같은 책 3권, 417, “子貢問友。子曰忠告而善道之。不可則止。毋自辱焉。”

21) 『소학집주(小學集註)』, 『명륜(明倫)』 2, <명봉우지교(明朋友之交)』 91, “程子曰 責善之道 要使誠有餘而言不足 則於人有益而在我者無辱矣.”

22) 『논어집주(論語集註)』, 『안연(顔淵)』 23장, “友所以輔仁 故盡其心以告之 善其說以道之 然以義合者也 故不可則止 若以數而見疏 則自辱矣.”

23)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10, 『유학(儒學)』, <곽시징(郭始徵)』.

24) 『명재유고(明齋遺稿)』 18, 『서(書)』, <답곽지숙(答郭智叔)』, “況此滿紙縷縷數百餘言。實出於愛我之至意。若微高明之相信深而相與篤者。何以有此竭盡兩端之誨乎。”

1669)와 윤증 부자가 송시열에게 충고한 내용이 담긴 <기유의서(己酉擬書)>와 <신유의서(辛酉擬書)>가 송시열에게 전해지면서 윤증과 갈등이 시작되는데, 결국 책선이 화가 되어 ‘회니시비’로 번진 것이다. 윤증은 <신유의서>에서, 송시열이 윤증에게 그의 아버지 윤선거와 마찬가지로 책선의 법도를 다할 것을 당부하여 그 도리에 따른다고 하였지만,²⁵⁾ 송시열은 자신에게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였으며²⁶⁾ 이로 인하여 끝내 사우(師友)의 관계가 끊어지고 서인(西人)은 분열하게 된다. 일련의 상황에서 곽시징은 책선의 도리를 신중하게 행하고자 노력했으며, 이에 대한 중요성을 작품을 통해서도 표현한 것이다.

25) 『명재유고(明齋遺稿)』別集 3, 「서(書)」, <의역회친서(擬與懷川書)>, “예전에 봉산(蓬山)에 유배되셨을 때 찾아뵈었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선장(先丈)은 봉우에 대해서 반드시 정성을 다하여 충고해 주었는데 자네는 그렇지 않으니 선친(先親)의 법도를 잃었다 할 것이네.”라고 저를 꾸짖어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삼가 절을 올리고 받들어 가슴속에 간직하여 지금까지 잊지 못하는데, 모두 갖추어 적은 이 한 통의 편지를 오히려 시종일관 두려워하며 감히 즉시 드러내지 못하여 선친의 법도를 떨어뜨렸으니 이것이 또한 죄 중의 큰 것입니다.”(昔年進拜於蓬山棘中也, 蒙門下責誨以爲先丈之於朋友. 必盡誠相告. 子則不然. 可謂失先法矣. 拯謹拜受奉持於心胸. 至今不敢忘. 而所具一書. 猶且首尾憂畏. 不敢卽暴. 荒墜先矩. 此又罪之大者也.)

26) 『송자대전(宋子大全)』부록14, 「어록」, <김창협록(金昌協錄)>, “만일 나에게 과연 기관과 권모술수가 있었다면 윤휴(尹鑄)의 일에 또한 어찌 적당히 방편(方便)으로 처리하지 않았겠는가마는 나는 도리어 이에 능치 못하다. 맨 처음 윤휴와 사귀어 한곳에서 같이 거처하면서 글을 읽었는데, 그 사람은 참으로 영재(英才)였다. 그후 그는 퇴계(退溪)와 우계(牛溪)·울곡(栗谷)을 많이 공격하므로, 나는 ‘우리들은 미미한 후생(後生)으로 어찌 선현을 함부로 의논할 수 있겠는가.’ 하였으나, 윤휴는 뜻이 낙락(落落)하여 내 말을 옳게 여기지 않았다. 그 뒤에 또 점점 주자를 공격하여 말로만 공격할 뿐 아니라 문자를 지어서까지 공격하였다. 나는 ‘이것은 그대로 내버려 둘 수만 없다.’고 생각하여 마침내 드러나게 배척하였는데, 한때의 친구들은 모두 나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나에게 참으로 권모술수가 있었다면 당시에 어찌 윤휴와 구차히 합하지 않고 도리어 힘을 다하여 배척하다가 마침내 바닷가로 귀양 가는 화를 취했겠는가.”(若使吾果有機關權數. 則於尹鑄事. 亦豈不方便處之. 而顧不能然矣. 始與鑄相交. 同處讀書. 其人儘英才也. 其後頗攻退溪及牛栗. 余謂之曰. 吾輩以眇然後生. 何可妄議先正. 鑄意落落. 不以爲然矣. 其後又稍攻朱子. 不但以言語攻之. 至作文字以攻之. 余以爲此不可但已. 遂顯加排斥. 而一時諸友則皆不從吾言矣. 吾誠有機關權數. 則當時豈不與鑄苟合. 而顧乃極力排斥. 終取海外梟棘之禍乎.)

3. 친구와 나의 같음[同]

이러타시 사귀여셔 지기상합호오며는
성부동 형제 되어 동감고 동스싱을
시중이 여일호면 그 교분 밧굴넌가

이렇듯이 사귀어서 志氣相合하면
姓不同 형제되어 同甘苦 同死生하여
始終이 如一하면 그 交分 바꿀 것인가

2. 벗과 나는 비록 두 개의 몸이지만, 두 몸 안의 그 마음은 하나일 따름이다.²⁷⁾

11. 걱정이 있을 때 나는 즐겨 벗을 만날 뿐이다. 그러나 근심거리나 있을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벗이 유익하지 않은 때가 있겠는가? [벗은 근심스러울 때는 근심을 덜어주고 즐거울 때는 즐거움을 더해 준다.²⁸⁾

18. 덕과 뜻이 서로 비슷해야 그 벗의 [사귄]은 비로소 공고해진다.²⁹⁾

22. 벗이라면 [자신의] 벗에 대해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 한결 같을 따름이다. 진실로 [벗에게는] 가깝고 뉘, 안과 밖, 앞과 뒤, 다른 말과 다른 마음이 없는 것이다.³⁰⁾

36. 벗은 형처럼 가까운 것이다. 그래서 벗들은 서로를 형이라고 불렀던

27) 마테오 리치, 송영배 역, 『교우론』, 7, “友之與我, 雖有二身, 二身之內, 其心一而已.”

28) 같은 책, 9-10, “在患時, 吾惟喜看友之面. 然或患或幸, 何時友無有益? 憂時減憂, 欣時增欣.”

29) 같은 책, 11, “德志相似, 其友始固.”

30) 같은 책, 13, “友者於友, 處處時時一而已. 誠無近遠, 內外, 面背, 異言異情也.”

것이다. 그러나 형제보다 더 좋은 것이 벗이다.³¹⁾

『교우론』의 2칙에서는 ‘동심(同心)’을 강조하고 있는데, <곽스부오륜가>에서도 진정한 교우 관계를 ‘같음(同)’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우선 이 작품에서는 교우가 되는 것을 ‘지기상합(志氣相合)’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의지와 기개’가 서로 잘 맞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18칙에서 우정이 공고해지기 위한 조건으로 ‘덕과 뜻’을 제시한 것에 비견된다. ‘덕과 뜻’이 일치한다는 것은 결국 방향성의 문제이며, 친구 간에 ‘추구하는 바’가 같아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논어』에서 “도(道)가 같지 않으면 서로 일을 도모할 수 없다.”³²⁾라고 한 것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친구는 ‘인을 보완하는 존재’이므로 ‘도’가 일치해야 우정을 도모하는 것이 가능하다.

벗의 가까움에 대해 ‘성이 다른(姓不同)’ 형제에 비유하는데, 이후 박지원이 벗을 ‘비기지제(匪氣之弟) 즉, ‘피가 섞이지 않은 형제’라고 한 것과 같다.³³⁾ 『교우론』 36칙에서도 “벗은 형처럼 가까운 것”이라고 하였으며, 더 나아가 “형제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까지 표현하였다. ‘붕우유신’은 오륜의 마지막 항목으로써, 유교 윤리의 핵심인 ‘친(親)’을 수평적으로 확장한 개념이다. 여기에서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벗도 윤리적 관계를 맺는 대상으로 여겨야 한다는 점이고, ‘친’의 관계와 달리 벗은 관계 자체가 윤리를 통해 유지된다는 점이다. 친구는 의지적·선택적 관계이며, 오륜에서 제시되는 다른 관계들과 달리 끊어지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전적으로 윤리가 담보되지 않으면 그 관계의 의미를 상실한다.

31) 같은 책, 16, “友於昆倫邇, 故友相呼謂兄. 而善於兄弟爲友.”

32) 정약용, 이지형 역, 『논어고금주』 4권, 421, “子曰道不同. 不相爲謀.”

33) 『연암집(燕巖集)』, 「예덕선생전(穉德先生傳)」, “子牧問乎蟬橘子曰, 昔者, 吾聞友於夫子曰, 不室而妻, 匪氣之弟.”

이러한 맥락에서 36칙에 제시된 ‘중음(中音)’은 우정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윤리’라는 데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정의 실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곽스부오륜가〉에서는 “생사고락(生死苦樂)”을 함께하여야 한다고 했으며, 이는 『교우론』 11칙과 상통한다. 일생을 두고 사귀를 지속하되,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시기하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위로하며 함께하는 것이 참된 친구의 마땅한 태도인 것이다. 그리고 이 관계는 처음과 끝이 같아야 한다고 하였는데, ‘한결같은’에 대하여 『교우론』 22칙에서는 “가깝고 멀, 안과 밖, 앞과 뒤, 다른 말과 다른 마음이 없는 것”이라고 풀이하였다. 나의 이해관계에 따라 벼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同心)’으로 벼을 대할 때 한결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같은 마음’을 지닌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공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벼와 동일하게 ‘인’을 보유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인의’가 통한다면 친구는 진정한 ‘제2의 나’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4. 친구 간 의리

옛적의 예양이는 엇던 벼 사귀던고
 칠신위나 탐탄위아 시중의 결식홀 제
 안희는 몰나 보되 그 벼슨 알아시니
 이 사람 거룩한 일 스기에 올랐도다

옛적 豫讓은 어떤 벼을 사귀었던가
 漆身爲癩 吞炭爲啞 市中에서 결식할 때
 아내를 몰라보되 그 벼을 알았으니
 이 사람 거룩한 일 『史記』에 올라 있도다

5. 때때로 평소애 아무 일 없을 경우 벗의 진위를 가려내기 어렵지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벗의 진실이 드러난다. 대체로 일이 급할 때 진실한 벗은 더욱 가까워지고, 거짓된 벗은 더욱 소원해진다.³⁴⁾

41. 만일 내게 항상 좋은 일만 있고 재앙이 없다면 어떻게 벗의 진실함 여부를 알 수 있겠는가?³⁵⁾

친구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결국 ‘의리를 지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양(豫讓)은 『사기(史記)』 「자객열전(刺客列傳)」에 등장하는 인물로, 춘추시대 말기 진(晉)나라 사람이다. 그는 진나라의 실권자 지백(知伯)의 가신이었는데, 지백이 조양자(趙襄子)에게 잡혀 죽자 복수하려다 실패한다. 이후 다시 기회를 엿보며 온몸에 옷칠을 하고 솟을 삼켜 목소리를 달라지게 하였고, 이에 그 아내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친구만은 그를 알아보았다고 한다. ‘칠신탄탄(漆身吞炭)은 이 고사에서 비롯된 말이다. 이는 고난에 처한 친구에 대한 태도를 보여준다는 맥락에서 <곽스부오륜가>에 인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내도 몰라보는 친구를 알아본다는 것은 친구에 대한 관심이 극진함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절명의 위기에 처한 친구를 모른척하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다.

<교우론> 5칙과 41칙에서는 재앙이 닥쳤을 때, 벗의 진실함 여부가 드러난다고 하였다.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벗의 태도를 통하여 우정의 진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친구의 처지와 상황을 따지고, 그로 인해 자신에게 미칠 손익을 계산하여 친구를 대하는 태도를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한결같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34) 마테오 리치, 송영배 역, 『교우론』, 8, “時當平居無事, 難指友之眞僞, 臨難之頃, 則友之情顯焉. 蓋事急之際, 友之眞者益近密, 僞者益踈散矣.”

35) 같은 책, 17, “如我恒幸無禍, 豈識友之眞否哉!”

벗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5. 우정과 관련된 세대 비판

금세 사람들은 봉우교유 우습도다
 마음은 천리로되 외면으로 사귀여서
 형실은 잇고 업고 심사는 엇더턴지
 전곡으로 의를 밋고 주식으로 경을 삼아
 만나면 넘나들며 희희 셋거 우습 한다
 술 먹고 취흔 말이 너 죽으면 엇지 살니
 하로나 못 보면은 그림기 간절터라
 이럿타시 말한다가 도라셔면 즉시 잇닉
 한 일이나 불협하면 성 너여 싸홀 격의
 그 경분 간디 업고 악담부담 서로 짝와
 욕지거리 먹살 들고 죽기 살기 헤아리랴
 미워하기 그지 업서 환면한다 절교된다
 교유지의 아조 업고 신지일즈 허스르다
 이렇 저렇 한다 가서 필경의 구슈 되니
 세도가 그리 되고 사람 노릇 엇지하리
 이 아니 한심하며 그 아니 미들손냐
 오류를 아라시니 봉우간도 삼가셔라

今世 사람들은 朋友交遊 우습게 여기도다
 마음은 天理로되 外面으로 사귀어서
 형실은 잇고 없고 心思는 어떻게
 錢穀으로 義를 밋고 酒食으로 情을 삼아
 만나면 넘나들며 戲謔 섞어 웃는다
 술 먹고 취해 하는 말이 너 죽으면 어찌 살리

하루라도 못 보면 그림기가 간절하더라
 이렇듯 말하다가 돌아서면 즉시 잊네
 한 일이라도 不協하면 화 내어 싸울 때에
 그 情分 간 데 없고 惡談腐談 서로 싸워
 욕지거리 먹살 잡고 죽기 살기 생각하랴
 미워하기 그지없어 還面한다 絶交한다
 交遊之誼 아주 없고 信 자 한 자 허사로구나
 이력저력 하다 가서 畢竟 仇讐되니
 世道가 그렇게 되면 사람 노릇 어찌 하겠는가
 이 아니 한심하며 그 아니 믿을 것인가
 五倫을 알았으니 朋友 간도 삼가거라

30. 벼를 사귀는 귀천은 그 사귀는 바의 뜻에 달려 있다. 다만 덕에 근거해서 서로 사귀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몇 쌍이나 될까?³⁶⁾

54. 속된 친구들은 모이면 [감각적인] 즐거움이 [내면에서 우러나는] 기쁨보다 많고, 헤어지면 근심을 남긴다. 의로운 벗들은 모였을 때 [내면에서 우러나는] 기쁨이 [감각적인] 즐거움보다 많고, 헤어졌을 때도 부끄러움이 없다.³⁷⁾

<곽스부오륜가>에서는 ‘봉우유신’ 항목을 다루면서 당대 우도(右道)에 대한 비판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였다. 이는 <오륜가>라는 장르 자체의 목적 지향성 때문에 나타난 모습으로도 볼 수 있지만, 작자의 창작의식이 반영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믿음 없는 사귀에 대해 경계하고 있는데, 마음 없이 외면으로만 사귀어서 결국 원수지간이 되고

36) 같은 책, 14-15, “交友之貴賤, 在所交之意耳. 特據德相友者, 今世得幾雙乎?”

37) 같은 책, 20, “俗友者同, 而樂多於悅, 別而留憂. 義友者聚, 而悅多於樂, 散而無愧.”

마는 허황된 우정에 대해 한탄하고 있다. 이는 이후 안정복(安鼎福, 1712~1791)의 편지에서 우도의 쇠락을 개탄한 내용과도 비슷하다.

지금 세상에는 또 하나의 폐단이 있는데, 친구 간에 서로 사귀면서 아양을 떨거나 서로 추켜세울 생각만 하고 충고하는 의리가 있다는 말은 들어 보지 못하였습니다. 또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금방 자기를 헐뜯는다고 여겨 그 끈끈했던 사이가 벌어져서 다시는 합쳐질 수 없으니 그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³⁸⁾

안정복은 친구 간 ‘권면하고 충고하는 의리’가 사라졌음을 지적하면서, 이로 인하여 진정한 우정이 성립될 수 없음을 비판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광시징 당시에는 송시열과 윤증 사이의 일로, 우정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과 논쟁이 시작되었다. 이들 간에는 ‘책선의 도리’가 문제가 되었고, 이 일은 하나의 분기점이 되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곽스부오륵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하지는 않았으나 회니시비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일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다만 ‘한 일이나 불협하면 필경 원수가 된다고 한 데서 진실한 우정을 유지하는 일과 올바르게 책선하는 일이 어렵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이는 『교우론』 30칙에서 덕에 근거하여 사귀지 않는 세대에 대해 비판한 내용과 연결된다. <곽스부오륵가>에서는 진실한 우정을 구가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 노릇을 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사람 노릇이라는 것은 덕 즉, 윤리를 실천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우정이

38) 『순암선생문집(順菴先生文集) 5』, 「서(書)」, <답남군왕서(答南君王書)>, “今世又有一種俗弊。朋友相交。惟以媚悅推獎爲意。不聞有規箴之義。一或規箴。便謂之訕己。膠漆者解而不復合。豈不寒心哉。”

란 윤리적 근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우정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윤리적 인간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곽스부오륜가>에서 그린 거짓된 우정의 모습은 곽시징의 경험보다는 오히려 『교우론』 54칙의 내용과 유사하다. 이 칙에서는 ‘감각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데, 친구와 그저 먹고 마시며 술 취하여 웃으면서 가벼운 말을 주고받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속된 우정은 감각적인 것만 충족하되 내면의 충만함이 없는데, 내면은 덕을 통해 충만해진다. 유가적 개념으로 말하자면 ‘보인’이 이루어질 때, 참된 우정이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우정’은 ‘좋은 인간’이 되는 것과 같은 선상에 있으며, <곽스부오륜가>와 『교우론』에서는 모두 이러한 우정의 윤리적 성격에 대해 논하고 있는 것이다.

III. 나가는 말

“참된 우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은 봉당 분기의 충격에서 시작되었다. 어제의 동지가 등을 돌려 다른 곳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누가 진정한 벗이며, 벗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점차 심화되었던 것이다. 사색당파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회니시비’라는 가장 큰 분기점의 중심에 놓여있던 곽시징은 <곽스부오륜가>를 통하여 답을 모색하였다.

곽시징이 생각한 우정의 본질은 “책선을 통한 보인”이었다. 궁극적인 목적이 “인을 보완하는 것”이기에 친구를 사귄 때 ‘선약과 ‘지체’를 가려서 사귀라고 하였으며, 이는 곧 친구가 ‘윤리적 관계’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정의 윤리성은 벗의 책무로 ‘책선’을 제시했다는 데서 잘 드러난다. ‘책선’은 벗의 허물에 대해 충고하여 선한 길로 이끄는 것을 이르는데, <곽스부오륜가>에서는 “조용히 경계할 것”을 당부하였다. 도를 넘어서는 책선의 문제로 사우 간 관계가 멀어지고 당파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한 곽시징

은 성심을 다하여 타이르되 듣지 않을 때 그만두어 욕됨을 피하는 지혜가 필요함을 역설(力說)하였던 것이다.

〈곽스부오륵가〉는 18세기에 활발하게 전개된 우정론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거슬러 올라가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비록 곽시징에 대한 기록이 부족하여 구체적인 계보를 구성하기는 어렵지만, 〈곽스부오륵가〉의 내용이 18세기 우정론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거론되는 마테오 리치의 『교우론』과 상당 부분 일치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곽스부오륵가〉가 우정론이 ‘담론화’되기 시작한 지점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곽스부오륵가〉와 『교우론』에 나타난 우정이 사라진 세태에 대한 비판은 두 글에서 모두 우정을 ‘윤리’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데 기인한다. 두 글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이러한 인식은 이후 전개된 우정론의 핵심을 보여준다. 우정이란 “좋은 사람 되기”를 추구하는 과정이며, 친구는 이것을 함께하기 위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다.

참고문헌

-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논어집주(論語集註)』
『소학집주(小學集註)』
『영조실록(英祖實錄)』
곽시징, <곽스부오륜가>
권상하, 『寒水齋集』
박지원, 『燕巖集』
송시열, 『宋子大全』
송치규, 『剛齋集』
안정복, 『順菴先生文集』
윤증, 『明齋遺稿』
강민구. “우리나라 중세 友道論에 대한 고찰 I - 友道論의 史的 전개.” 『동방한문학』
71 (2017), 7-62.
강전섭. “傳郭師傅의 <五倫歌>에 대하여.” 『동양학』 13 (1983), 87-127.
김수진. “18세기 老論系 知識人の 우정론.” 『한국한문학연구』 52 (2013), 165-200.
마테오 리치. 송영배 역. 『교우론(交友論)』.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박경애. “오륜계 가사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논문(1994).
박연호. 『교훈가사연구』. 서울: 다운샘, 2003.
_____. 고려대 고전문학한문학연구회 편. 『19세기 시가문학의 탐구』. 서울: 집문
당, 1995.
서영숙. “오륜가사의 서술방식과 의미.” 『한국언어문학』 37 (1996), 391-406.
송재연. “郭始徵의 <곽스부오륜가>에 구현된 오륜 형상과 그 의미.” 『고전문학연
구』 57 (2020), 57-87.
정약용. 이지형 역. 『논어고금주(論語古今註)』. 서울: 사암, 2010.
하운섭. “조선조 ‘오륜’ 담론의 계보학적 탐색과 오륜시가의 역사적 전개 양상.” 고
려대학교 박사논문(2012).

논문투고일: 2022년 11월 13일

심사개시일: 2022년 11월 14일

게재확정일: 2022년 11월 27일

• 국 문 초 록 •

‘붕우유신(朋友有信)’은 ‘우정(友情)’ 또는 ‘우도(友道)’가 수평적 관계에서 윤리의식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삶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18세기를 지나면서 사색당파의 고착, 성리학적 개념 해석의 정밀화,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1552~1610) 『교우론(交友論)』의 유입 등을 계기로 우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는데, 17세기 말 ‘회니시비(懷尼是非)’는 “누가 진정한 벗이며, 벗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의식을 불러온다. 붕비(朋比)의 소용돌이에 놓여있던 곽시징(郭始徵, 1644~1713)은 <오륜가(五倫歌)>를 통하여 답을 모색하였다. 곽시징이 생각한 우정의 본질은 “책선(責善)을 통한 인의 보완(輔仁)”이었다. 그리고 <오륜가>의 내용은 마테오 리치의 『교우론』과 상당 부분 일치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정론이 ‘담론화’되기 시작한 지점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두 글에서는 모두 우정을 ‘윤리’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우정을 “좋은 사람 되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는데, 이는 이후 전개된 우정론의 핵심을 보여준다.

주제어: 우정론, 곽스부오륜가, 교우론, 보인, 책선, 곽시징

